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쉼터 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장 희 숙

(성공회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쉼터아동과 일반아동들이 내·외적 적응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폭력 경험의 유형에 따라 표출하는 문제행동이 다른지 살펴보고, 적응력이 높은 아동과 부적응이 심한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또한 어떤 보호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가정폭력 쉼터에 거주한 72명 아동과 그들 어머니, 그리고 76명 비폭력가정 아동과 어머니들이다. 일원변량분석, 로지스틱 회귀모델, 경로분석을 사용해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폭력가정 아동은 비교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낮고, 우울/불안 수준이 높으며, 더 공격적이거나 잦은 횡수의 비행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아내폭력만 목격한 아동과 아내폭력 목격과 동시에 신체적 폭력도 경험한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은 공격성과 비행행동으로 밝혀졌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보호요인은 사회적 지지이며, 비행행동의 예측요인은 어머니의 학력, 소득, 아동의 연령,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넷째, 아내폭력은 아동의 적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아울러 학업성취도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내폭력은 어머니의 우울 정서 또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가정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가정폭력, 아내폭력, 적응행동, 적응유연성, 보호요인, 학업성취도, 사회적 지지, 자존감, 우울, 경로분석

1. 서론

아내폭력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피해여성들 위주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 개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컴퓨터에서는 입소아동을 위해 탁아소 연계, 방과후 학습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차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학교나 일반 상담기관의 경우, 가정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서 폭력가정 아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확인된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입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과 함께, 아이들의 심각한 외상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여성과 자녀를 각각 분리된 서비스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폭력가정의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채울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학대의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폭력은 모든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실제로 부모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은 학대를 직접 경험한 아이들과 유사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들(신혜섭, 2000; 장덕희, 2001; 조미숙, 1999; Fantuzzo and Mohr, 1999; Kaplan et al., 1998; Sternberg, 1993)은 폭력가정 아동에게 나타나는 외현화 및 내재화 반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비행, 우울/불안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해결과 대인관계기술의 부족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저하시키고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한다(Cummings and Davis, 1994).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습수행능력이 떨어지고(Allen and Tarnowski, 1989; EcKenrode et al., 1993; Kurtz et al., 1993), 폭력을 적합한 행동양식으로 인지하면서 가까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Sternberg et al., 1993).

이와 같이 폭력가정 자녀들이 나타내는 부적응은 심각하고 광범위하여 그들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개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적인 원조를 통해 어린 시절에 경험한 외상을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미래의 그들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폭력가정 자녀들을 위한 효율적인 개입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아동에 대한 경험적 검증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연구들은 개입과 예방프로그램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내폭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문제행동뿐 아니라 적응행동에도 관심을 갖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빈곤, 질병, 이혼 등 고위험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 가운데 적응력이 뛰어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적응유연성을 설명하려는 실증적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아내폭력가정 자녀들 역시 모두 문제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며, 26%(Wolfe et al., 1985)에서 60%(O'Keefe, 1995)의 아동들이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을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적응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달상 필요한 요인들을 발견하고,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폭력가정 아동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적응유연성 연구들은 역경을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과 환경의 보호요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헌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내적 보호요인은 사회적 능력(Garmezzy, 1985; Werner and Smith, 1982; Masten et al., 1990)과 자기효능감(장덕희, 2001; Cicchetti et al., 1993; Neighbors et al., 1993; O'Keefe, 1994)으로 요약된다.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변인들은 문제해결기술, 대인관계기술, 학업수행능력 등이며, 자기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자존감 변인이 가장 대표적이다. 연구들이 일관되게 검증한 외적 보호요인은 부모, 친구, 선생님, 주변사람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김세원, 2003; 박근혜, 1999; Caliso and Milner, 1994; Jones, 1997; Kaufman and Zigler, 1987; MaCloskey et al., 1985)이다.

다양한 보호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아동의 보호자원을 확충하는 설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적응행동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여러 보호요인들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적응에 해당하는 종속변수를 학업성취도, 비행, 자존감으로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보호요인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였다. 한편 Rutter(1990)는 보호요인이나 위험요인을 탐색하는 작업은 적응유연성 발달경로를 찾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매개변인 관련 연구들로부터 조금씩 시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Bolger 등(1998)은 또래지지가 고위험 상황과 자존감을 중재하고, Hugh-Bocks 등의 연구(2001)는 어머니의 우울 정서가 아동의 인지발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 등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적응경로를 밝힌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검증된 보호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폭력가정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지식이 빈약한 우리의 실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상호적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적응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탐색적 시도는 가정폭력 실천현장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자료는 다음의 4개의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되었다. 첫째, 아내폭력 발생 유무에 따라 아동의 적응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내폭력을 목격한 아동과 아내폭력 목격뿐 아니라 신체적 폭력도 경험한 집단은 적응행동에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내폭력가정에서 적응력이 높은 아동과 부적응이 심한 아동을 구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어떤 보호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연구들과 다르게 디자인되었다. 우선, 쉼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심각한 아내폭력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정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이들 가정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비폭력가정 자료를 수집하고 두 집단을 비교했다. 어머니와 아동에게 별도의 설문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교집단에서의 아내폭력 발생 여부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또한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사례와 아내폭력 목격과 동시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동을 차별해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보호메커니즘의 경로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1) 고위험 아동의 적응유연성과 보호요인

문제행동 아동의 특성을 밝힌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결핍된 측면을 주시하고 체계의 구조적 변화보다는 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들 스스로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적 요인들을 발견하면서 최근의 연구들은 역경 속에서도 잘 견디는 아동들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실제로 우리는 고위험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이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환경에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일까?

개인의 결핍에서 개인의 강점으로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은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라는 개념을 출현시켰다. Benard(1991)는 적응유연성을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일련의 속성 또는 보호메커니즘으로 정의하고 있다. Masten과 Coatsworth(1998)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적응유연성이라고 말한다. Rutter(1990)는 적응유연성이란 개인이 갖고 있거나 없는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라고 말한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동일한 개인이라도 적응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응유연성은 개인의 내적 자산 뿐 아니라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외적인 자산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적 및 외적 자산들을 보호요인이라 일컫는다(e.g., Garmezy, 1985; Gore and Eckenrode, 1994). 적응유연성으로부터 파생된 보호요인이라 개념은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개인의 반응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경험이나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된다(Rutter, 1990).

고위험 아동과 관련한 내적 보호요인은 크게 사회적 능력과 자기효능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e.g., Garmezy et al., 1984; Garmezy, 1985; Werner and Smith, 1988; Masten et al., 1990). Howard와 그의 동료들(1999)에 의하면, 사회적 능력이란 문제인식, 문제해결기술,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조망 등 효과적으로 사회의 과업들을 성취하게 만드는 개인의 인지, 행동, 감정의 통합적 능력을 의미한다. 연구들에서 사회적 능력과 관련해서 많이 조사되고 있는 변인은 지적기능(Huth-Bocks et al., 2001),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기술, 학업성취도(Garmezy, 1985; Werner and Smith, 1982) 등이다.

Rutter(1984)는 핵심 보호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중요시하면서, 이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직면한 상황을 자신이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이라고 설명한다. 자기효능감 영역에 포함되는 변인들은 자존감, 자율성, 미래와 목표에 대한 계획 등이다. 이미 상당수 연구들(Cicchetti et al., 1993; Neighbors et al., 1993; O'Keefe, 1994)이 자기효능감과 적응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 Rutter(1990)는 내적 보호요인 역시 개인이 고위험 상황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고유한 속성보다는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적응유연적 아동의 외적 보호요인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환경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보호요인은 일관성 있는 양육과 지지이다. 부모의 적합하고 일관된 역할모델, 개방되고 수용적인 태도로 자녀의 사회적 기능을 돕는 지지가 아동의 부적응을 완하시킨다고 한다(West and Farrington, 1973). 이외에 부모-자녀 관계(Rutter, 1978; Wyman et al., 1992), 가족 응집력(Garmezzy et al., 1984; Yama et al., 1992)이 아동의 적응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검증되고 있다.

또 다른 외적 보호요인은 학교체계에서 나타난다. Rutter 등의 연구(1984)는 학교에서의 유익한 경험이 가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아동들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켜 보호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생활 가운데 특히 교사의 지지, 학업이나 특정분야에서 경험한 성취감, 책임을 맡는 직위가 아동의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Rutter et al., 1984).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보여주는 교사의 관심과 지지는 아동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oburn and Nelson, 1989; Geary, 1988),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성취감은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Rutter, 1987). 끝으로,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보호요인으로 사회서비스기관, 친구, 친척들이 제공하는 공식·비공식 사회지지체계를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Pence, 1988). 요컨대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관련된 보호요인은 타인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정리된다.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일 뿐 아니라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요소이기도 하다.

2) 폭력가정 아동의 적응과 관련 요인들

임상적 경험이나 경험적 연구들은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부모폭력의 직접적 효과는 아동들의 다양한 내적, 외적 행동반응으로 나타난다. 아동들이 흔히 보이는 내적 증상으로는 불안, 두려움, 우울, 위축 등(e.g., 신혜섭, 2000; 조미숙, 1998; Hughes, 1988; Kaplan et al., 1998; Sternberg et al., 1993)이며, 외적 반응의 대표적인 문제행동은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비행(e.g., 신혜섭, 2000, 조미숙, 1998; Fantuzzo and Mohr, 1999; Fantuzzo et al. 1991; Hughes et al. 1989; Kaplan et al., 1998)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이 약하며(e.g., Jaffee et al., 1990; Wolfe et al., 1985), 학업성취도에서도 비폭력가정의 아동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e.g., Allen and Tarnowski, 1989; Eckenrode et al., 1993; Kurtz et al., 1993). 부모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으며(Spaccarell et al., 1994), 폭력적인 행동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Singer et al., 1995)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후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대학생을 표본으로 한 연구들은 부모폭력을 목격한 이들이 상대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고 자존감이 낮으며(Sivern et al., 1995), 낮은 수준의 갈등해결기술(Choice et al., 1995)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 폭력에 노출된 경험을 살펴본 자료들(e.g., Carlson, 1991; Cummings and Zahn-Waxler, 1992)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적인 문제를 더 많이 표출하며, 여아는 남아보다 우울증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에 대해 Wilson(1997)은 부모의 폭력을 관찰하면서 남아들은 폭력을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여아들은 폭력을 피하거나 변화시킬 방법은 없으며 폭력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그 유형 뿐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비록 폭력가정 아동의 부적응 수준과 관련된 정보는 미약하지만 관련 요소들이 문헌에 제시되고 있다. Cummings 등(1994)은 부모간 폭력의 빈도와 정도를 주요 예측요인으로 들고 있다. 곧, 부모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빈번하고 심각한 수준일수록 아동이 표출하는 행동의 심각성도 높다고 한다. O'Keefe 연구(1994)에서도 부모폭력을 목격한 횟수와 아동의 외적인 행동문제는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부모의 갈등해결 방식뿐 아니라 갈등의 내용 역시 아동의 부적응 정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Jenkins와 Smith(1991)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은 자신과 결부된 이슈로 부모가 다툰 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아동들이 부모폭력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몇몇 연구들(e.g., Carlson, 1991; Hughes et al., 1989)은 부모폭력 목격과 자녀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아동들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아동들보다 더 심각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킨다고 조사하고 있다. Rutter(1979)가 지적한대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누적될수록 아동의 적응력은 저하된다는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폭력가정 아동들이 모두 부적응 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고위험 상황에서도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아동들이 있다. O'Keefe(1995)는 폭력가정 자녀들 가운데 40%만이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폭력가정 아동의 적응장애를 완화시켜 주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부모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관련해서 내적 보호요인에 대해 알려진 바는 그리 많지 않다. O'Keefe(1994)는 헛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사회적 능력이 적응과 부적응 집단을 차별하는 요인임을 발견했다. Neighbor 등의 연구(1993)도 자존감이 높은 아동이 상대집단에 비해 적응력이 높다고 보고한다. 장덕희(2001)는 청소년의 내적 통제 수준과 자존감이 정서·행동 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자녀 관계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Holden과 Ritchie(1991)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도 아동들이 적응을 잘하는 것을 발견했다. O'Keefe의 연구(1994)는 어머니와 아동의 긍정적인 관계가 부모폭력 목격의 횟수에 상관없이 공격적 행동이나 비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McCloskey 등 연구(1995)에서도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자녀의 내외적 문제들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eighbors 등 연구(1993)에서는 어머니와의 강한 유대감이 청소년의 잠재적 부적응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Jones의 연구(1997)와 Kaufman과 Zigler의 연구(1987)에 의하면, 양육자의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자란 이들은 세대에 걸친 폭력의 순환을 깨뜨리는 경향이 높다고 말한다. Caliso와 Milner(1994)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지지는 자녀에게 인지 및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 역할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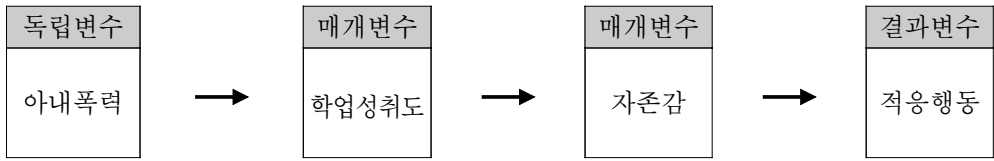
가정폭력 분야의 문헌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체계에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가장 영향

력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Jenkins와 Smith(1991)는 가족 외 성인과의 신뢰적 관계가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Rogers와 Holmbeck(1997)은 또래지지가 부모갈등과 아동의 적응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국내문헌들(김세원, 2003; 박근혜, 1999; 장덕희, 2000)도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사지지(김세원, 2003)와 사회복지기관의 공식적 지지(장덕희, 2000)도 폭력가정 자녀의 역기능을 완화시켜 주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폭력가정의 부모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역할로 인해서 자녀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 따라서 친구, 교사, 사회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는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라 하겠다.

3) 아내폭력가정 아동의 적응경로

적응유연성 연구가 예방과 개입프로그램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보호요인 뿐 아니라 적응과정을 설명하는 발달경로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들은 부모폭력의 직접적 효과만을 검증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아내폭력이라는 고위험 상황에서 어떤 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아동의 적응을 돕는지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아내폭력과 적응행동 사이에 개인,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보호요인으로 검증된 아동의 지적기능, 자존감, 모의 심리적 기능과 사회적 지지도를 중요 예측변수로 설정하고 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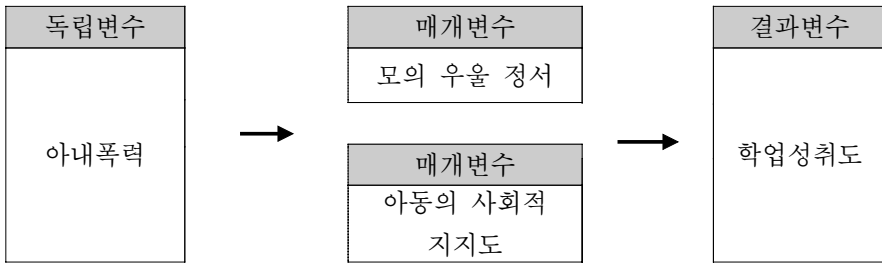
Rutter(1990)는 보호과정의 하나로 성취감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을 증진시켜서 적응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연구(1987)에서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성취감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밝혀냈다. Rutter(1987)의 가설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기초로 한다. Bandura(1977)는 수행성취가 자기효능감 기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 기대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재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문헌들은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비교집단보다 인지능력(Moore and Pepler, 1998), 언어적 능력(Allen and Tarnowski, 1989; Eckenrode et al., 1993), 수학 능력(Kurtz et al., 1993), 학업성적(Trickett et al., 1994)이 떨어진다고 밝힌다. 그러나 폭력가정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적기능과 자존감의 인과성을 조사하고 이들 변인들이 적응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특별히 학업성적에서 성취감을 얻을 것으로 추측하고, 학업수행능력을 자존감의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였다. Rutter(1987, 1990)의 가설이 국내자료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그림 1>의 경로도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경로도형 1

두 번째 모형(<그림 2> 참조)은 아동의 학업적응을 결과변수로 지정하고 아내폭력, 어머니의 우울 정서,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의 관계를 추정하는 모델이다. 모의 심리적 기능과 적응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델은 Jaffe 등(1990)이 형성한 가족붕괴가설이다. 가족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 가정붕괴가설은 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으로 가정 내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중시한다. 특히, 아동의 일차적 부양자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심리적 기능(예; 우울, 스트레스, 자존감)과 양육능력이 자녀의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아내폭력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비효율적인 자녀양육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아동의 부적응을 증가시킨다는 모형이다. 지적기능 관련 선행연구들(Allen and Oliver, 1982; EcKenrode et al., 1993) 역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부모의 관심 등을 아내폭력과 아동의 인지발달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학령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내폭력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Huth-Bocks 등의 연구(2001)는 어머니의 우울 정서가 가정환경의 결정요인이 되면서 아동의 언어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다. 가족붕괴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아내구타와 학업적응의 중간변수로 작용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제시하는 모형은 어머니의 심리 및 양육 기능 향상으로 보호효과를 증대시켜서 아동의 적응을 꺾이는 대안을 제안한다.

한편 사회지지모델에 의하면, 주변으로부터의 지지는 적응에 직접효과를 주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완충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문헌들은 또래지지(김세원, 2003; 박근혜, 1999; 장덕희, 2000; Rogers and Holmbeck, 1997), 교사지지(김세원, 2003), 사회기관의 공식적 지지(장덕희, 2000)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보다 세밀한 Bolger 등의 연구(1998)에서는 또래지지가 가정폭력과 같은 역기능적 상황과 자존감을 증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아동에게 새롭고 다양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제공하여 적응유연성을 높이는 전략(Rutter, 1990)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사회지지모델의 가설을 근거로, 효율적인 양육방식이 결핍된 환경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적으로 완충하여 아동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경로도형 2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와 절차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에 거주한 72명 아동과 그들 어머니, 그리고 76명 비폭력가정 아동과 어머니들이다. 본 연구는 2002년 4-9월에 전국에 위치한 총 10개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일시 거주하고 있던 어머니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에 걸쳐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나, 자녀동반 입소를 허용하는 쉼터가 제한되어 있고 학령기 이전 아동들을 표본에서 제외시킨 탓에 연구에 참여한 쉼터나 표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쉼터에서 회수된 총 77사례 가운데 자녀가 7세 미만이거나 17세 이상인 5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72사례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들 중 8명은 형제자매 관계로 설문지에 응답한 어머니는 총 64명이다. 한편 비교집단 설문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에서 1-6학년에 걸쳐 학년별로 고르게 선정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전체 107사례 가운데 부모간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가정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76명 아동과 그들 어머니가 본 연구의 비교집단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아내구타 발생유무는 아동과 어머니 양측의 일치된 응답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설문지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2개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어머니들은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비롯하여 폭력경험, 자녀양육, 심리사회적 질문에 관한 설문지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들은 부모와 자신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저학년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의 실무자 또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2명이 대면조사를 하거나, 어머니가 설명해 주고 아동이 기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저학년과 고학년 아동의 조사방법의 차이는 보고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조사도구

(1) 아동 대상 측정도구

①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의 3개 유형을 포함하며, 한국판 아동행동 평가척도(오경자 등, 1997; K-CBCL)를 활용해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K-CBCL의 문제행동척도에서 우울/불안 12문항, 공격성 14문항, 비행 1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자주 그렇다'까지 3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우울/불안의 Cronbach's α 계수는 .84, 공격성은 .72, 비행은 .52를 나타냈으며, 전체 36문항을 합한 문제행동척도의 내부신뢰도는 .88을 기록한다.

②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K-CBCL(오경자 등, 1997)의 사회능력척도에서 학업수행을 평가하는 문항들을 활용해서 측정되었다. 아동들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개 과목에 대해 '아주 못함'에서 '아주 잘함'의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본 자료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2이다.

③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CTS-R(Straus, 1990)을 수정한 7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항목은 '없음'에서 '거의 매일'까지 5점 리커트 양식으로 질문되었다. CTS-R의 내부신뢰도 α 계수는 .77에서 .88이며(Straus and Gelles, 1990), 이 연구에서 조사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8이다.

④ 폭력에 대한 허용도: 폭력에 대한 허용 정도는 Margolin과 Foo(1992)가 제작한 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JVS)의 수정된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했다. 아동들은 5개 상황에서 친구에게 사용하는 신체적 폭력의 정당성을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했다. JVS의 Cronbach α 계수는 .89(O'Keefe, 1998)이며, 본 연구에서는 .84를 기록한다.

⑤ 자존감: 아동의 자기수용과 자기가치에 대한 인식은 Rosenberg(1965)의 자이존중감 척도(RSE)에 의해 측정되었다. RSE의 10문항 중 5문항을 선택해서 사용했으며, 각 항목은 4점의 응답형식을 취한다. Rosenberg(1965)는 .92의 재생산(reproducibility) 계수와 .72의 scaleability 계수를 보고했다. 본 자료의 신뢰도 계수는 .71이다.

⑥ 사회적 지지도: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 교사, 또래의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Hernandez(1993)가 사용한 학업관련 사회지지 문항들을 수정해서 사용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자주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척도의 신뢰도는 .85이다.

⑦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부모 양육태도 척도(이시형 등, 1997)의 '민주형'에 해당하는 5개 문항들에 의해 측정하였다. 본 자료는 부모 양육태도의 신뢰도 계수를 .87로 보고하고 있다.

⑧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부터 방임,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을 말한다. 본 연구는 Straus(1979)의 CTS 항목들을 토대로 방임 9문항, 언어적 폭력 6문항, 신체적

폭력 6문항을 구성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없음’에서 ‘거의 매일’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방임의 신뢰도 계수는 .88, 언어적 폭력은 .82, 신체적 폭력은 .73이다.

(2) 어머니 대상 측정도구

① 생활스트레스: 어머니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Rutter 등(1970)이 개발한 문항들을 수정하여 사용했다. 정서 및 생리적 반응에 관한 25개 질문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전혀 없음’에서 ‘항상’까지 7점 척도로 응답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척도의 신뢰도는 .98을 기록한다.

②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활용해서 측정하였다.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부모, 부모-자녀, 아동 영역으로 분류하여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17문항으로 재구성해서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자료의 신뢰도 계수는 .82이다.

③ 우울: 어머니의 심리적 우울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Beck Depression Inventory(Beck et al., 1961; BDI)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서, 인지, 동기, 생리적 증후군에 관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작되었다. 원판의 내부신뢰도 계수(split-half)는 .93이며, 본 연구에서의 alpha 계수는 .89이다.

④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RSE(Rosenberg Self Esteem)에 의해 측정되었다. RSE는 총 10항목으로 이루어진 단일 차원의 거트만 척도로서 4점 척도로 측정된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RSE의 신뢰도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⑤ 사회적 지지도: 사회적 지지도는 이영자(1996)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가족, 친구, 전문가로부터 받는 정서, 평가, 정보, 물질적 지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원도구의 Cronbach α 평균치는 .92(고려대학교, 1999)이며, 본 자료의 α 계수는 .89이다.

3) 분석방법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자녀들의 환경적 특성, 그리고 그들 어머니들의 인구사회학적 및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쉼터아동과 일반아동들이 각각의 내·외적 적응 행동에서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해서 조사했다. 다음 단계로, 쉼터거주 아동들 가운데 부모간 폭력을 목격했으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자녀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고 동시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녀를 구분하고, 문제행동, 학업수행, 자존감 등에서 두 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적응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분류한 후, 학업성취도, 비행, 자존감에 대한 세 개의 각기 다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적응/부적응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측정했다. 끝으로, 적응행동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아내폭력의 직·간접효과를 살펴보고, 선정된 예측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두 개의 독립된 재귀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경로도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폭력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도는 다시 자존감과 연결되면서 아동의 적응 행동에 영향을 준다. 둘째, 아내폭력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 또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경로분석의 모수치들은 AMOS 프로그램(Arbuckle and Wotho, 2000)을 활용해서 보통최소자승법에 의해 산출되었다.

4. 연구결과

1)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자녀 및 어머니의 특성

<표 1>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자녀의 환경적 특성(N=148)

변인	쉽터아동(n=72) M(SD)	일반아동(n=76) M(SD)	F or χ^2 값	P
나이	11.00(2.25)	10.33(1.91)	3.84	.052
학년	4.18(2.30)	3.62(1.68)	2.90	.091
성별	n(%)	n(%)	.78	.409
남	28(38.9%)	35(46.1%)		
여	44(61.1%)	41(53.9%)		
방임(부)	2.56(1.35)	1.27(0.52)	59.38	.000
방임(모)	1.52(0.94)	1.23(0.49)	5.07	.026
언어적 폭력(부)	1.84(1.02)	1.02(6E-02)	45.60	.000
언어적 폭력(모)	1.15(0.51)	1.08(0.27)	1.16	.284
신체적 폭력(부)	1.50(0.66)	1.02(7E-2)	39.15	.000
신체적 폭력(모)	1.13(0.52)	1.05(0.17)	1.79	.183
양육태도(부)	2.43(1.00)	3.72(0.52)	96.68	.000
양육태도(모)	3.78(0.36)	3.74(0.47)	0.19	.662
사회적 지지(전체)	3.16(0.54)	3.33(0.50)	3.82	.053
어머니지지	3.51(0.50)	3.58(0.48)	0.79	.377
또래지지	2.88(0.92)	3.03(0.79)	1.10	.296
교사지지	3.08(0.72)	3.39(0.67)	7.37	.007

<표 1>은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자녀들의 배경 및 환경적 특성을 비교한 도표이다. 전체 148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10.7년(SD=2.10)이며, 평균학년은 3.9학년(SD=2.02)으로 초등학교 1-3학년이 69명(46.6%), 4-6학년이 67명(45.3%), 중학교 1-3학년이 12명(8.1%)을 차지한다. 양 집단의 초등학교 비율은 학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쉽터에 거주하는 12명 중학생들로 인해서 폭력가정 자녀들이 상대집단보다 연령과 학년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약화시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분석이 요구하는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쉽터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아 85명(57.4%), 남아 63명(42.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쉽터 거주 여아가 남아보다 많은 것은 대부분 보호시설들이 고학년 남아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자료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아내폭력 발생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방임($F=5.1$; $p < .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생활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쉼터 어머니들이 상대집단보다 자녀를 보살피고 감독하는데 더 소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방임($F=59.4$; $p < .001$), 언어적 폭력($F=45.6$; $p < .001$), 신체적 폭력($F=39.2$; $p < .001$)은 두 집단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녀들에게 여러 종류의 학대를 각각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은 비교집단 보다 아버지의 비민주적 태도($F=96.7$; $p < .001$)를 더 많이 보고하고 있으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일반아동과 유사한 수준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쉼터 거주 아이들은 어머니 또는 친구로부터 상대 집단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아동들이 인지한 교사지지($F=7.37$; $p < .01$)에서는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어머니들의 특성(N=140)

변인	쉼터여성(n=64) M(SD)	일반여성(n=76) M(SD)	F 값	p
나이	37.44(5.36)	36.93(4.54)	.37	.543
본인학력	3.09(0.74)	3.06(0.69)	.07	.795
결혼기간	11.80(4.08)	12.68(3.13)	2.11	.149
자녀수	2.13(0.73)	2.05(0.54)	.47	.492
자녀와의 관계	1.31(0.55)	1.27(0.53)	.23	.629
사회적 지지	3.22(0.97)	3.37(0.77)	1.07	.304
생활스트레스	3.92(1.18)	2.01(0.75)	140.51	.000
양육스트레스	2.56(0.52)	2.11(0.48)	30.75	.000
우울 수준	0.82(0.47)	0.31(0.43)	46.93	.000
자존감	2.78(0.48)	3.07(0.39)	16.71	.000

* 학력: 1= 초졸;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5=대졸; 6=대학원 이상

* 자녀와의 관계: 1= 매우 가깝다; 2=가깝다; 3=보통이다; 4=멀다; 5=매우 멀다

<표 2>는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어머니들의 관련 특성을 살펴본 내용이다. 총 140명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2년($SD=4.96$)이며, 결혼기간은 12.2년($SD=3.64$), 자녀수는 2.1명($SD=0.64$)이다. 대부분의 여성들($n=104$; 74%)은 고졸학력을 지녔으며, 전체 어머니들의 3이 자녀와 매우 가깝다고 응답했다. 두 집단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쉼터여성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생활스트레스($F=140.5$; $p < .001$), 양육스트레스($F=30.8$; $p < .001$)를 보고하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우울($F=46.9$; $p < .001$)과 자존감($F=16.7$; $p < .001$)을 나타내고 있다. 폭력가정 어머니들의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성이 자녀의 어떤 적응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2)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자녀의 적응행동

<표 3>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자녀들의 적응행동 비교(N=148)

변인	쉼터아동(n=72) M(SD)	일반아동(n=76) M(SD)	F 값	p
학업성취도	3.28(0.67)	3.53(0.64)	5.42	.021
문제행동	1.39(0.22)	1.16(0.16)	51.97	.000
우울/불안	1.58(0.37)	1.19(0.25)	55.97	.000
공격성	1.40(0.24)	1.21(0.21)	23.98	.000
비행	1.17(0.18)	1.07(0.12)	16.63	.000
신체적 폭력	1.40(0.47)	1.15(0.41)	12.47	.001
폭력에 대한 허용도	1.97(0.77)	1.50(0.65)	16.34	.000
자존감	2.85(0.69)	3.08(0.61)	4.97	.027

<표 3>은 아내폭력가정 자녀와 비폭력가정 자녀들이 나타내는 내·외적 문제들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아내폭력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들은 비폭력가정 아동들보다 학업성취도(F=5.42; p< .05)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우울/불안 수준(F=56.0; p< .000)이 높고, 공격성(F=24.0; p< .001)이나 비행(F=16.6; p< .001)문제들을 더 많이 표출하고 있었다. 쉼터아동들은 상대집단에 비해 폭력에 대한 허용도(F=16.3; p< .000)가 높으며, 신체적 폭력행동(F=12.5; p= .001)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자존감(F=5.0; p< .05)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검증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폭력경험 유형에 따른 두 집단의 적응행동

<표 4> 폭력경험 유형에 따른 두 집단의 적응행동 비교(N=66)

변인	부모폭력 목격 (n=37) M(SD)	부모폭력 목격 + 신체적 학대 (n=29) M(SD)	t 값	p
학업성취도	3.29(0.68)	3.34(0.63)	-0.268	.790
문제행동	1.34(0.19)	1.48(0.23)	-2.485	.016
우울/불안	1.54(0.35)	1.66(0.41)	-1.240	.220
공격성	1.35(0.24)	1.51(0.22)	-2.699	.009
비행	1.13(0.13)	1.25(0.22)	-2.801	.007
신체적 폭력	1.39(0.45)	1.47(0.52)	-0.624	.535
폭력에 대한 허용도	1.95(0.76)	2.01(0.76)	-0.359	.721
자존감	2.81(0.65)	2.93(0.73)	-0.452	.653

쉼터에 거주한 총 72명 자녀들 중 66명(92%)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들 가운데 29명(44%)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4>는 부모간 폭력을

목격했으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37명과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고 동시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29명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비교한 표이다. 두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은 공격성($t = -2.70$; $p < .01$)과 비행($t = -2.80$; $p < .0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Davis and Carlosn, 1987; Hughes, 1988)이 예측한 바와는 다르게, 우울/불안, 폭력행동 등 다른 변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적응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아동의 적응 또는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보호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e.g., Hernandez, 1993; Waxman, 1997; 조미숙, 1999)은 비교집단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5%, 하위 25%를 적응 또는 부적응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일반아동 평균의 상·하위 30%를 기준치로 설정했다. 이 기준점은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임의로 정해진 것으로서 이론적 근거는 미약하다.

<표 5> 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의 빈도

변 인	적응 아동 n(%)	부적응 아동 n(%)
학업성취도	22(30.6%)	34(47.2%)
비행	55(76.4%)	16(22.2%)
자존감	21(29.2%)	39(54.2%)

<표 5>는 학업성취도, 비행, 자존감에 대한 적응과 부적응집단의 빈도를 표시하고 있다. 학업성취도에서는 총 72명 쉼터 거주 아동들 가운데 31%를 차지하는 22명이 적응집단에 속했으며, 34명(47%)이 부적응집단에 포함되었다. 문제행동의 하위척도인 우울/불안과 공격성은 부적응집단에 각각 3명(4%)만을 포함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비행에서는 쉼터아동들 대부분($n=55$; 76%)이 적응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16명(22%)이 부적응집단에 해당한다. 아동들은 자존감 변인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부적응집단(54%; $n=39$)에 분포되어 있었다.

<표 6> 학업성취도: 적응 vs 부적응에 관한 Logistic 모델($n=56$)

변인	B(SE)	p	Exp(B)
상수	-5.664(2.429)	.020	.003
여아	1.313(0.772)	.089	3.716
아내폭력 기간	-0.118(0.089)	.188	.889
신체적 폭력 경험	0.940(0.718)	.190	2.561
사회적 지지도	1.528(0.734)	.037	4.610
-2Log(df)	53.757(4)		
X ² (p)	10.686(.030)		

<표 6>은 학업수행에 있어서 적응 또는 부적응집단에 대한 예측변수의 효과를 측정한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이다. 제시하고 있는 모델($X^2=10.69$; $p= .03$)은 4개의 주요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도($p= .037$)가 아동의 학업적응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다. 다른 모든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지지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아동이 적응집단에 속할 예측 odds는 4.61배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업수행 적응과 성별($p= .089$)은 0.10 α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학업에 적응할 확률의 odds는 3.72배 높았다. 그러나 부모간 폭력기간이나 신체적 학대 경험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7> 비행: 적응 vs 부적응에 관한 Logistic 모델($n=71$)

변인	B(SE)	p	Exp(B)
상수	-4.376(2.758)	.113	.013
나이	0.390(0.193)	.043	1.478
신체적 학대 경험	0.530(0.827)	.521	1.699
월소득(모)	0.695(0.329)	.035	2.005
학력(모)	-1.571(0.609)	.010	.208
사회적 지지도(모)	1.512(0.567)	.008	4.536
-2Log(df)	54.077(5)		
X^2 (p)	18.177(.003)		

* 월소득: 1=0; 2= 50만원 미만; 3=50-100만원; 4=100-150만원; 5=150-200만원; 6=200-250만원; 7=250-300만원; 8>300만원 이상

<표 7>은 비행에서의 적응행동과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사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제시된 모델($X^2=18.18$; $p= .003$)은 나이($p= .043$), 수입($p= .035$), 모의 사회적 지지도($p= .008$)가 비행행동을 자제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수행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표 7> 모델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도가 아동의 비행을 방지하는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아동의 연령이 1년씩 증가함에 따라 적응집단에 속할 예측 odds는 1.5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과 자녀의 비행행동 역제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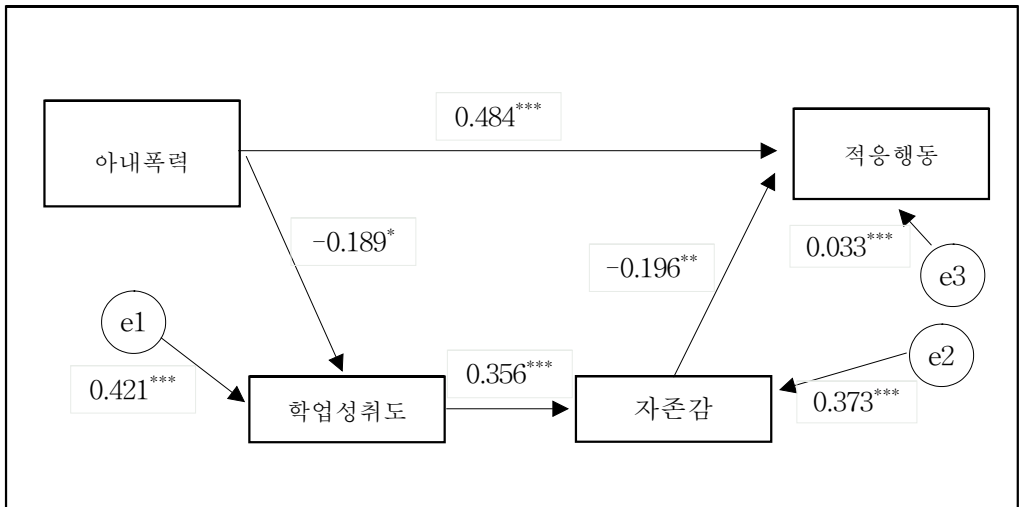
<표 8> 자존감: 적응 vs 부적응에 관한 Logistic 모델($n=60$)

변인	B(SE)	p	Exp(B)
상수	-15.771(5.139)	.002	.000
성별	0.510(0.862)	.555	1.665
아내폭력 기간	-0.195(0.114)	.088	.823
사회적 지지도	3.253(1.082)	.003	25.872
자존감(모)	2.095(1.035)	.043	8.129
우울 수준(모)	0.034(0.977)	.972	1.035
-2Log(df)	42.976(5)		
X^2 (p)	27.929(.000)		

<표 8>은 자존감에 있어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로지스틱 모델이다. 제시하고 있는 모델($X^2=27.929$; $p=.000$)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p=.003$)와 어머니의 자존감($p=.043$)이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존감을 높인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또한 어머니의 자존감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아동이 적응집단에 속할 odds는 8.1배씩 증가하고 있다. 비록 엄격한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아내폭력 기간($p=.088$)이 줄어들면 아동의 자존감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5)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경로

(1) 아내폭력이 자녀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 $X^2=4.470$, $df=2$, $p=.107$; $NFI=.989$; $PNFI=.099$; #= $p<.10$ *= $p<.05$ **= $p<.01$ ***= $p<.001$
 * 적응행동: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을 합한 값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적응력이 높음.

<그림 3> 아내폭력이 아동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9> 경로도형의 인과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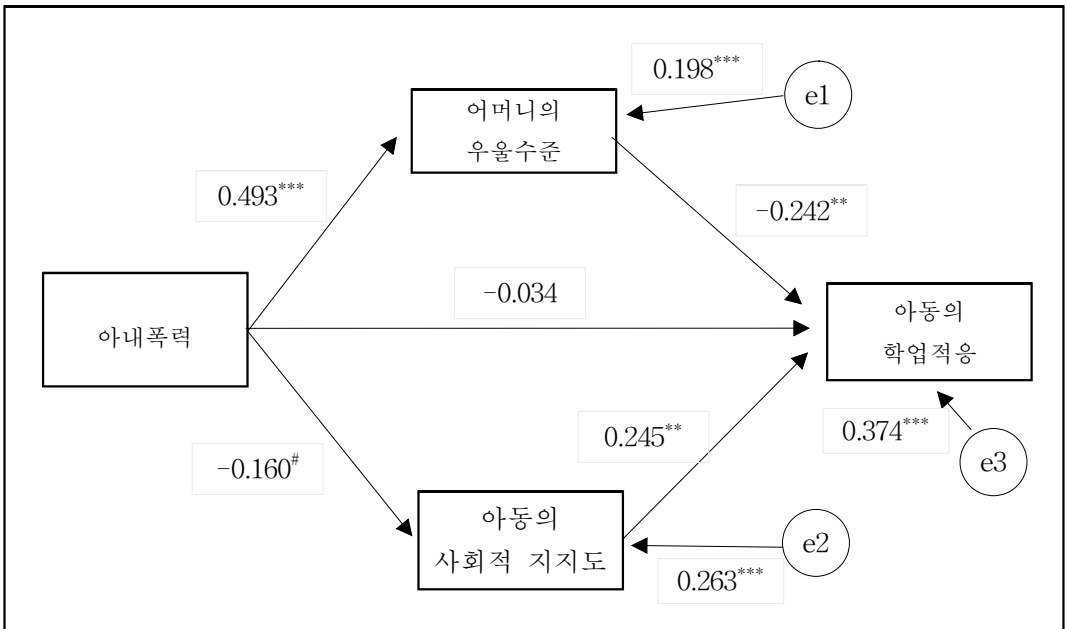
유의미한 효과	아내폭력	학업성취도	자존감
총효과	0.497	-0.070	-0.196
직접효과	0.484	0.000	-0.196
간접효과	0.013	-0.070	0.000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와 Rutter(1987)의 가설을 기초로 아내폭력, 학업성취도, 자존감,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림 3>은 전체표본 148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아내폭력의 효과를 조사한 경로도형 결과이다. 제안모형은 절대적합지수 평가에서 $X^2=4.470$, $df=2$, $p=.107$ 로 나타나 모집단의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은 적합도에 만족할 만한 표준적합지수 $NFI=.989$, 간명적합지수 $PNFI=.099$ 를 기록하고 있다. 변수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시하기 위해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오차정도가 그림에 제시되었다.

아내폭력은 아동의 적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b=0.21$; $SE=0.03$; $CR=6.90$;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간 폭력은 그 자체로 아동의 부적응을 예측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폭력은 학업성취도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적응에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내폭력 경험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0.25$; $SE=0.11$; $p=.02$)을 미치고, 학업성취도는 다시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력($b=0.35$; $SE=0.08$; $p=.000$)을 행사하며, 자존감은 적응행동과 밀접한 관계($b=-0.07$; $SE=0.02$; $p=.005$)를 맺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표 9>가 보여주듯이 아내폭력의 적응에 대한 직접효과는 0.484이며, 간접효과는 0.013으로서 전체적인 영향력은 0.497 수치를 나타낸다. 학업성취는 아동의 자존감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적응행동에 간접효과($0.356 \times -0.196 = -0.07$)를 보이고, 자존감은 직접효과 -0.196으로서 아동의 적응행동 빈도에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Rutter(1987)가 제안한 가설을 일부 지지하고, 아내폭력가정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업 수행능력과 자존감 향상을 꾀하는 개입방법을 제안한다.

(2) 아내폭력이 자녀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 $X^2=0.649$, $df=1$, $p=.420$; $NFI=1.00$; $PNFI=.100$; # $p<.10$ * $p<.05$ ** $p<.01$ *** $p<.001$

<그림 4> 아내폭력이 아동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10> 경로도형의 인과효과

유의미한 효과	아내폭력	어머니의 우울 수준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
총효과	-0.193	-0.242	0.245
직접효과	-0.034	-0.242	0.245
간접효과	-0.159	0.000	0.000

가족붕괴가설과 사회지지모델을 바탕으로 아동의 학업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림 4>는 총 148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아내폭력, 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의 관련성을 제시한 경로도형이다. 모형은 절대적합지수($X^2=0.649$, $df=1$; $p=.420$), 표준적합지수($NFI=1.00$), 간명적합지수($PNFI=1.00$)에서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4>에서 표시된 값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오차이다.

아내폭력은 학업적응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모의 우울 또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들이 검증했듯이, 아내폭력은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b=0.50$; $SE=0.07$; $p=.000$)을 행사하고,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성($b=-0.31$; $SE=0.11$; $p=.006$)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내폭력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고, 어머니의 높은 우울 정서는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학업성취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의 직접효과는 -0.242 이다.

한편 아내폭력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b=-0.17$; $SE=0.09$; $p=.05$)를 갖고,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b=0.31$; $SE=0.10$; $p=.002$)을 미치고 있었다. <표 10>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효과(전체효과= 0.245)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내폭력은 결과변수에 대해 간접효과(-0.159)가 직접효과(-0.03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특성을 밝히고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회귀모델과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폭력가정 아동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더 빈번하게 방임,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어머니의 언어적 및 신체적 폭력은 상대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쉽터거주 어머니들의 아동방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어머니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본 자료에서도 쉽터여성이 상대여성보다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월등하게 높고 자존감이 낮

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컴퓨터아동들은 어머니지지와 또래지지에서 일반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교사로부터는 덜한 지지를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은 비폭력가정 아동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낮고, 우울/불안 수준이 높으며, 더 공격적이거나 잦은 횡수의 비행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으며, 신체적 폭력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내용들과 유사하며,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재확인하고 있다.

셋째, 아내폭력가정 자녀들 중 92%가 부모간 폭력을 목격했으며, 이들 가운데 44%가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폭력 목격만 경험한 아동과 아내폭력 목격과 함께 신체적 폭력도 경험한 자녀를 비교해 보았다. 두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은 외적행동에 속하는 공격성과 비행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Carlson(1991) 또는 Hughes(1988)의 연구에서와 달리, 우울/불안, 자존감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대부분 경미한 수준의 신체적 아동학대를 보고하고 있어서, 연구표본들이 경험한 폭력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인다.

넷째, 가정폭력이라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아동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학업성취, 비행, 자존감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학업성취에 대한 보호요인은 어머니, 친구, 교사의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뿐 아니라 또래, 선생님 등 외부의 정서적 지원이 아동의 인지발달과 학업성취 동기유발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비행행동을 예방하는 요인들은 주로 어머니와 관련된 특성이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 소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비행횟수는 감소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모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어서, 아내폭력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가족, 친구, 전문가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외적 자원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낮은 연령도 비행행동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Hughes(1988)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 또는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가정폭력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보호요인은 학업적응에서와 같이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자녀의 자존감 수준은 어머니의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 개 분석결과들은 모두 아동 또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를 가장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선행연구들(Caliso and Milner, 1994; Jenkins and Smith, 1991; Jones, 1997; Kaufman and Zigler, 1987; Rogers and Holmbeck, 1997)이 지적인 사회적 지지와 적응의 밀접한 관련성을 재검증하고 있다. 다섯째, 기존 연구결과와 가설들을 기초로 아내폭력, 학업성취도, 자존감, 적응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예측한 바와 같이, 아내폭력은 아동의 적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학업성취도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적응행동에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Rutter(1987)가 주장한대로, 학업성취도는 자존감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고, 자존감은 적응행동에 직접효과를 나타내면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적응력과 연결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취감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보호과정(Rutter, 1990)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 제시한 경로도형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과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내폭력과 학업적응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가족붕괴가설이 설명하고 있듯이, 아내폭력은 모의 우울 수준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우울 성향은 다시 아동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비슷하게,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아내폭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학업적응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개입을 통해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과정과 아동에게 다양한 외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적응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자료는 특정 내·외적 보호요인들이 폭력가정 아동들의 적응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심리정서 및 사회적 지지가 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폭력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은 다각적 측면에서 여러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교사는 과격한 행동, 우울/불안, 비행과 같은 문제를 보이는 폭력가정의 아동들과 만나게 된다. 가정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선생님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상관없이 가정폭력 여부를 조사하고 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이 확실시되면, 가정폭력전문상담기관과 협조체제를 이루어 상담을 하거나 전문인에게 의뢰하며, 필요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에서 얻는 성취감을 통해 아동의 적응을 높이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Rutter(1990)는 개별아동의 흥미와 자질에 따라 특별활동을 장려하고 특정영역에서 책임을 맡는 직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대안을 장려한다. 열악한 환경의 아동들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습지도,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일대일 수업지도 등 사회기관의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사회적 지지와 적응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아동의 사회지지체계를 개발해 주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뿐 아니라 교사, 또래, 외부의 공식·비공식적인 지지는 헌신과 관심이 부족한 가정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서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교사와 친구의 지지는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보호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학교사회사업가는 아동들이 또래지지를 확보하도록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기관들도 폭력가정 아동들이 외부의 어른이나 친구들과 만나고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하겠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아내폭력가정의 어머니들에게 개입하고 그 효과를 통해 아동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은 자녀의 적응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며,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익히고, 사회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폭력으로 인하여 각자가 위기에 직면했던 어머니와 자녀들은 그들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표출한다. 따라서 폭력가정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태도, 가치, 신념에 도전하며 자녀양육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는 폭력가정 자녀들을 위한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적응을 돕는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해야 한다. 상담은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피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교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특히 폭력에 대한 교육, 폭력과 관련된 감정표현, 문제해결과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습득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쉼터 거주 어머니와 아동은 쉼터를 찾지 않은 아내폭력가정 구성원과 다를 수 있고, 그들이 직면한 스트레스 수준을 감안할 때 연구결과를 전체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횡단분석자료에 의존하여, 아내폭력의 영향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폭력의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시간적 우선성도 엄격하게 구별되지 못했다. 자기기입식과 연령에 따라 달리 채택된 조사방법은 보고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의 탐색적 분석의 결과들은 향후 반복된 검증을 통해 재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아동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부모폭력으로 인해 아동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적응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1999. 『심리척도 핸드북』. 서울: 학지사.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근혜. 1999. “폭력가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신혜섭. 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6: 67-85.
-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7.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시형·이세용·정현희·박현선. 1997.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제 97-7호.
-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조미숙. 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 Abidin,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llen, R. E., and J. M. Oliver. 1982.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language development.” *Child Abuse and Neglect* 6: 299-305.
- Allen, D. M., and K. Tarnowski. 1989. “Depressive characteristic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ren Psychology* 17: 1-11

- Arbuckle, J. L., and W. Wothe. 2000. *Amos 4.0 User's Guide*. IL: Smallwaters Corporation.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ck, A. T., C. Ward, M. Mendelson, J. Mock, and J. Erbaugh.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3-63.
- Benard, B. 1991. *Fostering Resiliency in Kids: protective factors in the family, school, and community*. Portland, Oregon: Western Center for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 Bolger, K. E., C. J. Patterson, and J. B. Kupersmidt.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 1171-1197.
- Caliso, J. A., and J. S. Milner. 1994. "Childhood physical abuse, childhood social support and adult child abuse potentia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 27-44.
- Carlson, B. E. 1991. "Outcomes of physical abuse and observation of marital violence among adolescents in place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526-534.
- Choice, P., L. Lamke, and J. Pittman. 1995.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marital distress as mediating factors in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wife battering." *Violence and Victims* 10: 107-119.
- Cicchetti, D., F. A. Rogosch, M. Lyhch, and K. D. Holt. 1993.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Development and Pyschopathology* 5: 629-647.
- Coburn, J., and S. Nelson. 1989. "Teachers do make difference." Report No. RC-107-103, Washington, D. C.,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 Cummings, E. M., and C. Zahn-Waxler. 1992. "Emotions and the socialization of aggression." pp. 61-82. in *Socialization and aggression*, edited by A. Fracz and H. Zumley. New York: Springer.
- Cummings, E. M., and F. Davies.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New York: Guilford.
- Davis, L. V., and B. E. Carlson. 1987. "Observations of spouse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278-291.
- Eckenrode, J., M. Laird, and J. Doris. 1993. "School performance and disciplinary problems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29: 53-62.
- Fantuzzo, J. W., L. M. DePaola, L. Lambert, and S. Sutton. 1991. "Effects of interparental violence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258-265.
- Fantuzzo, J. W., and W. K. Mohr. 1999. "Prevalence and effects of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he Future of Children* 9(3): 21-32.
- Garnezy, N., A. S. Masten, and A. Tellegen. 1984. "The study of stress and competence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97-111.
- Garnezy, N. 1985. "Stress 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logy*, edited by J. E. Stevenson. Oxford, England: Pergamon.
- Geary, P. A. 1988. *Defying the Od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 Gore, S., and J. Eckenrode. 1994. "Context and process in research on risk and resilience." in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dited by R. Hagger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olden, G. W., and K. L. Ritchie.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Howard, S., J. Dryden, and B. Johnson. 1999. "Childhood resilience." *Oxford Review of Education* 25(3): 307-323.
- Hughes, H. M. 1988. "Psychological and behavior correlates of family violence in child witnesses an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8: 77-90.
- Hughes, H. M., D. Parkinson, and M. Vargo. 1989. "Witnessing spouse abuse and experiencing physical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4: 197-209.
- Huth-Bocks, A. C., A. Levendosky, and M. A. Semel. 2001.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young children's intellectual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3): 269-290.
- Jaffe, P., D. S. Wolfe, and S. Wilson. 1990. *Children of Battered Women*. Newbury Park, CA: Sage
- Jenkins, J. M., and M. A. Smith. 1991.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Children Psychiatry* 32: 793-810.
- Jones, D. P. 1997.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as mediators of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and Neglect* 21: 207-209.
- Kaplan, S. J., D. Pelcovitz, S. Salzinger, M. Weiner, and F. S. Mandel. 1998. "Adolescent physical abu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 954-959.
- Kaufman, J., and E. Zigler.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186-192.
- Kurtz, P. D., J. M. Gaudin, J. S. Wodarski, and P. T. Howing. 1993. "Maltreatment and the school aged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17: 581-589.
- Margolin, G., and L. Foo. 1992. *The attitudes about dating scale*. C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Masten, A., K. Best, and N. Garmezy.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Masten, A., and J. D. Coatsworth.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1.
- McCloskey, L. A., A. J. Figueredo, and M. P. Koss. 1995. "The effects of systemic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6: 1239-1261.
- Moore, T. E., and D. J. Pepler. 1998. "Correlates of adjustment in children at risk." pp. 157-184. in *Children Exposed to Marital Violence*, edited by Holden, G. W., Geffner, R., and Jouriles, 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eighbors, B., R. Forehand, and D. McVicar. 1993. "Resilient adolescents and interparental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462-471.
- O'Keefe, M. 1994.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aritally violent homes." *Families in Society* 75(7):

403-417.

- O'Keefe, M. 1995. "Predictors of child abuse in maritally violent famil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 3-25.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erson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1): 39-57.
- Pence, A. R. 1988. *Ecological Research with Children and Familie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gers, M. J., and G. N. Holmbeck. 1997. "Effects of interpersonal aggression on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125-130.
- Rutter, M., Tizard, J., and K. Whitmore. 1970. *Health and Behavior*. NY: Longman Inc.
- Rutter, M. 1978. "Family, area and school influences in the genesis of conduct disorders." in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dited by L. A. Hersov, and D. Schaffer. Oxford, England: Pergamon.
- Rutter, M. 1984. "Resilient children." *Psychology Today March*: 57-65.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edited by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euchterlein, and S. Weintraub.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lvern, L., J. Karyl, and K. Min. 1995. "Retrospective reports of parental partner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177-202.
- Singer, M. I., T. M. Anglin, L. Y. Song, and L. Lunghofer. 1995. "Adolescents' exposure to violence and associated symptoms of psychological trauma." *JAMA* 273: 477-482.
- Spaccarell, S. 199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in child sexual abuse." *Psychological Bulletin* 116: 340-362.
- Sternberg, K. J., M. E. Lamb, C. Greenbaum, D. Cicchetti, S. Dawud, R. M. Cortes, O. Krispin, and F. Lorey. 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 Psychology* 29: 44-52.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traus, M. A. 1990. "The Conflict Tactics Scale and its critics." pp. 507-528.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edited by M. A. Straus, and R. J. Gell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Straus, M. A., and R. J. Gelles.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Waxman, H. C., S. L. Huang, and Y. N. Padron. 1997. "Motivation and learning environment differences between resilient and nonresilient Latino middle school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9(2): 137-155.
- Wener, E., and R. Smith.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 Wener, E., and R. Smith. 1998.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Adams, Bannister and Cox.
- West, D. J., and D. P. Farrington. 1973. *Who Becomes Delinquent?* London: Heinemann.
- Wilson, K. J. 1997. *When violence begins at home*. CA: Hunter House Inc.
- Wolfe, D. A., P. Jaffe, S. K. Wilson, and L. Zak. 1985. "Children of battered women." *Journal of Consultant Clinical Psychology* 53: 657-665.
- Wyman, P. A., E. L. Cowen, W. C. Work, A. Raoff, P. A. Gribble, G. R. Parker, and M. Wannon. 1992. "Interviews with children who experienced major life stres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904-910.
- Yama, M. F., S. L. Tovey, B. S. Fogas, and L. A. Teegarden. 1992. "Joint consequences of parental alcoholism and childhood sexual abuse, and their partial mediation of family environment." *Violence and Victims* 7: 313-325.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aritally Violent Homes :

An Exploratory Analysis Focusing on Children Living in Shelters for Battered Women

Chang, Heesuk
(SungKongHoe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children living in shelters for battered women. Specifically,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internal and external adjustment was examined using data from two samples: children who were exposed to marital violence and those who did not have violent experience. Likewise, this study identified the variables that distinguished the "resilient" children from the maladjusted group. The pathways by which protective factors considerably affected children's adjustment were also investigated. A total of 72 children in a women's shelter and their mothers and 76 children in nonviolent homes and their mothers were considered. ANOVA, logistic regression models, and path analysis were employed to process the data. Results revealed that children of battered women demonstrated a high frequency of aggressive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had poor academic achievement and depressive mood compared to children coming from nonviolent homes. Likewise, children who were exposed to marital violence and were physically abused themselves were more likely show aggressive or delinquent behaviors compared to those who only witnessed marital violence. In addition, social support was found to be a protective factor in academic achievement. Predictors of delinquent behavior included the mother's education and income as well as the children's age and social support.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self-esteem included the social support and the mother's self-esteem. Moreover, woman battering has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adjustment as well as indirect effect through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Finally, woman battering indirectly affecte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the mother's depression or the child's social support.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of enhancing children's adjustment were discussed.

Key words: family violence, woman battering, adjustment, resiliency, protective factor, academic achievement, social support, self-esteem, depression, path analysis

[접수일 2003. 8. 29 게재확정일 2003. 11.3]